

농축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농·축협 및 농민단체의 역할



김영철 교수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1980년대에 들어와 국제교역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가 세계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이다. 특히 미국이나 EC를 중심으로 한 농축산물 교역질서에 관한 논쟁과 마찰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정을 통하여 이미 그 중요한 쟁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즉 지금까지 각국에서 취해온 농업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들은 국내 농축산물 생산 및 가격구조와 세계 농축산물 교역질서를 왜곡시키므로 이를 공동노력으로 폐지하여 자유무역주의 하에서 새로운 교역질서를 정립하자는 것이다.

이와같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과거와는 달리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축산업 관련 보조금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이의 타결은 우리나라 농축산

업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개방 문제가 당면한 심각성은 지난 11월초순 미국의 대 EC보복관세 발표로 시작된 미국과 EC간의 무역마찰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의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보면, 특히 미국이나 서구 여러나라에 비하여 영농 규모가 너무나 영세하고, 생산기반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농축산물의 수입이 개방된다면 국제적으로 아예 경쟁이 되지 않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현실하에서 급속하게 농축산물 수입을 개방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포기하자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

다가오는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협동조합과 생산자 단체들이
각자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축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크게 두가지 대응책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 하나는 가격 경쟁력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품질 경쟁력 문제이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가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없지 않으나 영세한 생산규모나 생산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국제가격보다 몇 곱절도 더 비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농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인 쌀과 쇠고기의 경우 국제 가격보다 3~5배나 더 비싸다.

한편 우리나라 농축산업이 수입자유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높아져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특정한 농축산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맛이나 품질면에서 월등한 것도 없지 않

아서 이와 같은 품질을 계속 향상시켜 우리나라 농축산물도 세계시장에서 품질을 경쟁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생산농민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개인 생산농민들의 역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개개인 생산농민들이 합리적인 경영에 의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개개인 생산농민의 노력만으로는 농축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주요한 투입재인, 농약이나 비료 및 사료 또는 농기계등의 가격을 인하시킬 수는 없다. 특히 개개인 생산농민들은 생산한 농축산물의 유통 및 교역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의 특성때문에 단체로 협동하는 힘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소위 시장교섭력이 약해서 제값을 받기가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생산농민들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생산농민의 개개인으로서의 농가소득이나 농가자본 축적의 저위성 등으로 말미암아 고도의 첨단기술을 필요하는 새로운 고급 품질의 신품종을 개발할 수 없다. 물론 생산농민으로서 이미 개발되어 보급된 농축산물의 특수한 품종을 가장 효율적으로 경작하거나 사양관리를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보다 좋은 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고급품질의 품종을 개발하는 데는 정부나 기타 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생산농민들의 농축산물 생산, 유통 및 교역과정에서 농민들의 한계성때문에 협동조합이나 협회 등 생산농민들의 단결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자구책을 스스로 강구하는 단체운동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에서도 일찍부터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운동과 더불어 농업기술자협회,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 양돈협회 등 농축산물 생산자들의 자조 및 자구단체로서 많은 생산자 단체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나 협

회등은 다같이 조합원이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한다는 의미에서는 다를바 없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조합원을 위하여 구체적인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적 단체라는 데서 일반적으로 차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인 농민의 권익 보호 단체로서 협회나 연구회 등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로 보아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자 조합인 협동조합의 중요성은 매우 큰 것이다.

농축협이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조합원 농민들의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투입생산요소인 비료, 농약, 사료, 동물약품 및 농기계등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적기에 적량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농·축협은 앞으로 조합원 농민들의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주요 생산자재, 생산부문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생산자재를 생산하여 적기에 적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현재 농협의 화학비료 생산부문 참여라든지 축협의 배합사료 산업에의 참여등은 좋은 본보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협에서 직·간접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사업체의 효율적인 경영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협동조합경영이 협동조합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민간 기업경영에 비하여 비효율성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축협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조합원 농민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농축산물을 마음놓고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농축협의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이 맛도 좋고 값도 비싸지 않으며, 어느면으로 보나 수입 농축산물 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며 국민들의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될 때에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농축협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품질과 규격면에서도 상품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조합원 농민들이 생산한 우수한 농축산물이 농축협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유통됨으로서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외로 협동조합간 협력이나 협동의 문제이다. 협동조합의 6대 원칙중의 하나인 협동조합간 협동문제는

국내의 협동조합간 협동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동조합간 협동 문제를 포함한다. 국내에서 협동조합간 협동문제로서는 농협이나 축협간의 협동문제 뿐만아니라 현재 탄생의 진통을 겪고 있는 소비자협동조합과의 협동이 매우 중요하다. 즉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하나로서는 생산자 조합인 농축협의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이 전국적인 소비자협동조합과 연계되어 일종의 계통출하 계통판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으로는 지난 10월에 동경에서 열렸던 제30차 국제 협동조합연맹 총회에서 논의되었던 “국제협동조합 교역기구(가칭)”를 통하여 농축산물의 국제교역을 협동조합 부문내에서 수행함으로써 농축산물의 수출국이나 수입국에서 협동조합 조합원의 권익을 상호 최대한 보호·대변하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다가오는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협동조합 이외의 각 생산자단체의 역할도 각자 본래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잘 수행 될 때에 생산자 단체로서 농·축협의 역할은 더욱 증진되는 것이다. **■**